

# 1인 가구시대 백화점 강좌 “YOLO 라이프”

《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번 뿐이다》

### 광주신세계, 음식·인테리어·여행...내달 13일까지 접수 롯데백화점, DIY 가구·반려견 테라피 등 6~8월 진행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백화점 문화강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 취미 중심이었던 백화점 문화 강좌가 요리와 가구 제작 등 혼자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6월 13일까지 여름 학기 신규 회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여름학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강좌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DIY와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가구를 설치하고 조립하는 방식의 제품 증가와 1인용 간편식 도시락, 삼각김밥과 커피머신으로 한끼를 때우는 혼밥족, 집에서 혼자 술 먹는 일명 혼술족 등

혼자서 하는 나홀로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나홀로족들을 위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한끼 혼밥’ ‘8첩 반상 간편 집밥’ ‘8일 다이어트 샐러드 강좌’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혼자 떠나는 여행, 특별한 취미 등 ‘올로 라이프’를 위한 ‘나홀로 인테리어 연출’ ‘나만의 팝아트 그리고, 나홀로 여행하기’ 등 삶의 휴식, 이색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강좌를 마련했다.

여름학기 명사특강으로 행복한 위로와 공감이라는 주제로 소통전문 강사인 김창욱 대표가 전하는 ‘관계회복 소통 테라피’

의 주제로 오는 26일 진행된다. 또 언어의 마술사로 불릴 정도로 32년 차 아나운서인 윤영미 대표가 전하는 ‘언(言)테크로 성공하라’를 주제로 오는 27일 강의한다.

이 밖에도 제테크 전문인으로 부터 듣는 생활경제, 조대치대병원 교수진들과 함께 하는 전문의 특강 등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됐다.

이번 여름학기는 불학기 대비 1회 실속 강좌를 30% 정도 추가 기획해 주말 가족 단위, 직장인 주말 또는 저녁 원데이 클래스 등 수강자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좌의 폭을 넓혔다. 광주신세계 여름학기 접수는 9층 아카데미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www.shinsegae.com)도 가능하다. 문의 062-360-1500.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도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정기강좌와 단기강좌를 진행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셀프인테리어 족’들이 늘어나고 반려견 천만시대에 맞춘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강좌로 꾸며졌다.

이번 문화센터 강좌에서는 반려견 아로마테라피 강좌를 진행한다. 반려견의 보습 위한 브러싱 스프레이와 해충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그리고 여름철 반려견 냄새를 잡아줄 아로마 디퓨저 또는 캔들 수업이 마련됐다.

또 손쉽게 나만의 DIY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내가 직접만드는 원목가구’ ‘감성우드 스피커’ ‘원목 캠핑용 테이블’ 만들기 등도 진행된다.

접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 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culture.lotteshopping.com)를 통해서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공로기자 kroh@kwangju.co.kr



김희철(왼쪽에서 다섯번째)광주지방국세청장이 최근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에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제청 주요 정책홍보와 현장 세무상담을 독려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광주국세청 ‘찾아가는 현장 세정’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찾아 정책 설명·상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최근 지역 축제인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제청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광주지방국세청과 해남세무서 직원들은 5월에 예정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국제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통합 제공하는 각종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와 경영여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안을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인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향후 관내 경제·유관단체, 납세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축제 현장에도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국제청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우리 해상교량 알리기

### 익산국토청 9월까지 사진공모



고속 거금대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완중)은 해상교량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공모전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해상교량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여행지에서 만난 우리의 아름다운 해상교량’이다.

호남지역 해상교량 또는 현재 시공중인 해상교량의 경관을 단독으로 촬영하거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교량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한 사진 등 모두 가능하다.

응모는 국토교통부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주제, 방문 동기 등의 내용을 작성한 뒤 사진(개인별 최대 5점 이내)과 함께 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가작 23명, 입상 50명 등 총 8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 및 시상식은 10월 중에 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아리쉬 코르디(왼쪽에서 두번째) 이란전력공사 사장과 유한열(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전력 해외부사장이 지난 29일 테헤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등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제강>

## 한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첫 진출

### 이란과 계약... 10년간 70만 감축·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이 자체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인 뒤 감축분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사업에 처음 진출한다.

한전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전력공사와 온실가스의 일종인 육불화황(SF6)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 사업 및 이란전력 본사에 ‘K-BEMS’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CDM은 기업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규제 대상이 아닌 나라에서 6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이

익을 얻는 사업이다.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 대상 37개국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한 뒤 기업별로 배출권을 배정해주고, 모자라는 기업이 남는 기업으로부터 사서 쓰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소에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한전은 자체 보유한 SF6 가스 회수 기술을 활용해 이란에서 10년간 7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감축분을 국내 시장에 들여와 거래하면 약 10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전은 ‘K-BEMS’(한전형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이란전력공사 본사에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K-BEMS’는 태양광과 연계된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최대전력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력수급 급증으로 여름철 피크 전력 절감이 시급한 이란에 우리 기술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이란 내 한전의 ESS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전은 국내 기자재업체들과 공동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반 및 동반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분기 신설법인 2만5천개 ‘역대 최대’

### 광주 24.3% 증가

경기 회복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올해 1분기 신설법인 2만5000여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2만4094개)보다 5.6%, 1350개 늘어난 2만5444개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분기 신설법인은 2014년 2만761개에서 2015년 2만2652개, 지난해 2만4094개로 최근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 3월 신설법인 수는 9천143개로 지난해 같은

달(8985개)보다 1.8% 늘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6.1% 감소했으나 지난해 4분기 5.3%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3.4%나 증가했다.

1분기에 새로 생긴 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5167개(20.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102개, 20.1%), 건설업(2917개, 11.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43개), 경기(5766개) 순으로 설립됐다. 전년동기대비 세종(31.5%), 광주(24.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이건희 회장 병상 3년... 병세 그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오는 11일이면 만 3년이 된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인공 순환장비인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음 날 새벽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심폐기능이 정상을 되찾자 입원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원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져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일 삼성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병세는 생활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65 since 1952

어린이 행복특권 공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군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군산시의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